



혜능 이래 역대의 조사들은 "불법이 곧 세간법이고 세간법이 곧 불법"이라며 생활속의 수행을 강조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도의 유마 거사가 부처님 제자들을 능가하는 지혜로 교화를 베풀었으며, 세속의 티끌 속에 있으면서도 결코 마음이 물들지 않았으므로 '깨끗한 이름(淨名)', '때 묻지 않은 이름(無垢稱)'이라고 불리며 재가불교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후 생활선을 표방한 당 나라 때 거사불교의 거장 방 거사, 신라의 부설 거사가 출현해 재가불교의 꽃을 피운다. 자리아타의 대승사상을 실제 생활에서 구현한 이들 3대 거사의 수행현장을 찾아 생활불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가늠해 본다.



인도 바이살리 비살왕의 왕궁에서 서북쪽으로 바라본 풍경.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이 방향으로 5~6리 떨어진 곳에 있는 기림에서 <유마경>이 설해졌다고 한다.

유마 거사 흔적없는 유적엔 침묵으로 설한 '不二' 소리없이 '생생'



<유마경>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진 유마 거사의 자취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00년대 초반부터 나온 인도 고고학 회 연차 보고서를 샅샅이 훑었지만, 바이살리에서 유마 거사의 흔적이 발굴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의지할 수 있는 문헌자료라고는 7세기에 인도를 순례했던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남긴 <대당서역기>뿐. 여기서도 유마 거사 관련 유적지에 대한 언급은 두세 군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마거사가 붓다와 동시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1000년이 넘게 지난 후에 쓰인 기록이다. 그나마 인도에서 구할 수 있었던 <대당서역기> 영역본 한 권을 끼고, 델리에서 출발할 때부터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다.

나침반 들고 바이살리로
먼저 목적지인 바이살리 인근의 가장 큰 도시인 빠뜨나에 도착하여 여정을 풀었다. 빠뜨나에서 바이살리는 도로 사정이 비교적 양호해 3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빠뜨나에서라면 혹시 책에 나오지 않은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1957년부터 60년까지 진행된 바이살리 지역의 마지막 공식 고고학 발굴을 담당했던 K.P. 자이스왈 연구소(K.P. Jaiswal Institute)가 있는 곳이 바로 빠뜨나이기 때문이다. 당시 연구소장이던 알테카르(Altekar) 박사는 발굴팀의 총책임을 맡았었다. 그래서 바이살리를 찾기에 앞서 K.P. 자이스왈 연구소의 초두리 (Vijaykumar Chaudhury) 소장자를 찾아 자문을 구했다. 거

기서 얻은 조연은 유마 거사와 관련된 것 중 실제 발굴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뭔가 알고 싶으면 '현장의 <대당서역기>를 참고하라'는 것. 알고 있는 것의 확인 수준 적 양호해 3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빠뜨나에서라면 혹시 책에 나오지 않은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1957년부터 60년까지 진행된 바이살리 지역의 마지막 공식 고고학 발굴을 담당했던 K.P. 자이스왈 연구소(K.P. Jaiswal Institute)가 있는 곳이 바로 빠뜨나이기 때문이다. 당시 연구소장이던 알테카르(Altekar) 박사는 발굴팀의 총책임을 맡았었다. 그래서 바이살리를 찾기에 앞서 K.P. 자이스왈 연구소의 초두리 (Vijaykumar Chaudhury) 소장자를 찾아 자문을 구했다. 거

일 가능성이 높다.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이 왕궁만 해도 반경 4~5리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발굴된 왕궁 터는 채 100미터도 되어 보이지 않는다. 왕궁에서 서북쪽으로 5~6리 떨어져 있었다는 가림은 그나마 이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다시 그 가림을 기준으로 유마거사의 옛 집터를 찾아야 하는데, 가림터를 모르면 집터 역시 오리무중이다. 유마 거사가 증평의 병고(病苦)를 가없이

는 것이 바로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관건이라는 대답들을 했다. 뒤이어 지혜의 화신 문수사리보살이 대답하기를, "모든 것에 있어서 말도 없고, 설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인식할 것도 없으니 일체의 문답을 떠나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즉, 문수보살은 '입불이(入不二)'란 무언무설(無言無說)이라 정의하고, 모든 것에서 진실로 사비를 떠났을 때에 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문수사리보살은 같은 질문을 유마 거사에게 되물었다. 이 때 상황을 경에서는, "유마는 오직 침묵하여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터만 남은 비살왕의 왕궁.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나온 왕궁은 이 자리를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맨 위) 바이살리에 남은 사리왕의 폐허. 여기에서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됐다. 이 사리는 빠뜨나 박물관으로 옮겨져서 전시중이다.(가운데) 중국 운강석굴 제6굴에 새겨진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문답그림. 왼쪽이 문수보살, 오른쪽이 유마거사.(맨 아래)

'대당서역기' 기록 유마거사 고향 바이살리 집터와 '유마경' 설한 추정지에는 탐만...

도 모르겠다는 친절한 한마디를 덧붙인다. **#PD 고고학 보고서 유적 발굴기록 없어**
그냥 부딪쳐 보는 수 밖에... <대당서역기>와 나침반을 들고 무작정 바이살리로 향했다. <대당서역기>에서는 바이살리에서 유마 거사와 관련된 장소를 두 군데 언급하고 있다. 한 군데는 부처님께서 <유마경>을 설하셨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왕궁을 기준으로 하여 서북쪽으로 5~6리쯤 가면 가림이 있고, 가림 옆에 있다는 스투파(탑)가 바로 그 장소이다. 이 가림에서 다시 서북쪽으로 3~4리 가면 또 다른 스투파가 있는데, 이 스투파가 세워진 곳이 예전에 유마 거사가 살았다는 집터라고 한다. 우선 기준이 된 '왕궁'이라는 곳이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발굴되어 있는 '비살왕의 집터'

여기는 보살심으로 병들어 누웠었다는 그의 집. 아마 현장 스님이 바이살리를 찾았던 당시에도 집은 남아있지 않았던 듯 하다. <대당서역기>에도 그의 집이나 집터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이 있던 자리에 스투파가 있다고 했다. **# '침묵의 진리' 중국 선종서적 수용**
그리고 그의 집은 '불이법문(不二法門)'의 경지에 대한 성현들의 심포지엄(?)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유마경>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서 유마거사는 "절대 평등한 경지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떠나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대중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러 보살들이 단지 더러움과 깨끗함, 아름다움과 추함 등 이원적이고도 상대적인 개념을 벗어나

모든 행동이나 언어의 표현은 소위 신발 위에서 가려움을 긁는 것과 같아서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나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유마 거사는 침묵으로 응변했던 것이다. 이같이 유마 거사가 설한 침묵의 진리를 중국 선종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생활 속의 선으로 정착시키게 된다. 유마 거사의 흔적을 찾아 지쳐, 바이살리 여기저기 널려있는 또다른 불적들을 돌아 보았다. 바이살리에는 아쇼카 왕의 석주와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된 스투파의 폐허 등 제법 많은 유적지들이 있다. 부처님 사리는 이미 빠뜨나 박물관으로 옮겨져서 일 반에게 관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이살리에서는 볼 수 없었다. 마가다 제국의 수도였던 빠뜨나 시내에도 당시 불교의 막강한 후원자였던 마우리아 왕조의 자취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정작 고도(古都) 파

탈리푸트라(빠뜨나의 옛 이름) 유적을 찾아 보았을 때 몇 년 째 물에 잠겨 주춧돌은커녕 거대한 연못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는 참으로 권력무상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마 거사의 집터, 가림터가 차라리 땅 속 어딘가에 숨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게만 여겨졌다. 유마 거사는 그 때나 이제나 말이 없다. 바이살리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그의 행적을 읽을만한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불이법문의 경지인가. 그래, 어쩌면 무엇이 남아있건, 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건, 그것이 뭐 그리 중요 할 것인가. 아쇼카 대왕이 제국의 수도 파 탈리푸트라에 남겼던 대연회장.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수도 무성한 늪으로 변해버 리지 않았던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유마 거사가 침묵으로 설한 불이 법문의 도리는 얼마나 지순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인가. 글 · 사친/인도 바이살리=이지는 통신원



바이살리의 아쇼카 석주 근처에 남은 집터. 당시 스님의 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유마경>이 설해 진 가림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Friend

프스코는 고객, 주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주주님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한주 한주가 모여 포스코를 이루었기에, 소중한 주주님의 권리까지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주주님들은 배당금 유효시효(5년)에 관계없이 그동안 누락된 배당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배수권 배당금 지급	
대상배당금	1988~2003년 배당금
구비서류	등장사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인도도 배당금 수령을 위한 본-외국에서 11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 문의처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내치동 862번지 차곡관리실 주선실 우135-777
전화번호	080-000-6060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